

numbers 제 119호



주요 내용

2021.11.12

1. 이번 주 주제 :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실태]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 없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인식]
우리 국민 절반가량 주 4일 근무제 '찬성한다'!
 -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대학생 및 졸업자 3명 중 2명, '사실상 구직 단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기도 한 ‘경험 없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의 달이다. 1년 내내 감사해야 하지만 11월은 특히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내는 만큼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최근 월드비전이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사뭇 흥미롭다.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감사 표현 대상으로 하나님이 물론 가장 높는데, 교회구성원보다 배우자나 부모에 대해 감사표현 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의 직장동료/거래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감사 정도가 낮았다.

또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는 개신교인이 무려 46%나 되고, 4명 중 1명 가량은 하나님께 평소 감사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119호는 기독교인들의 감사생활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소개한다. 이번 호를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 지역/성별/연령 비례할당추출(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에 근거)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무작위추출법을 가정했을 경우)
- 조사 기간 : 2021년 9월 10일 ~ 9월 23일(14일간)
- 조사 의뢰 기관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 조사 수행 기관 : <실사(Fieldwork)> (주)지앤컴리서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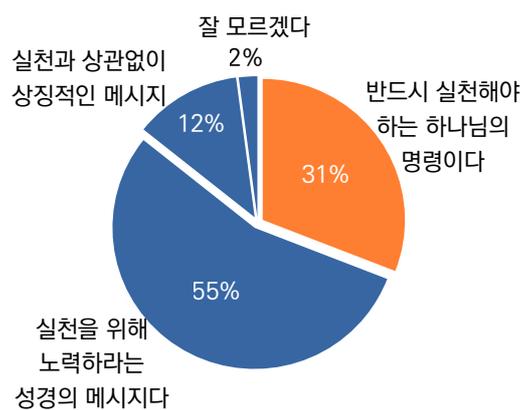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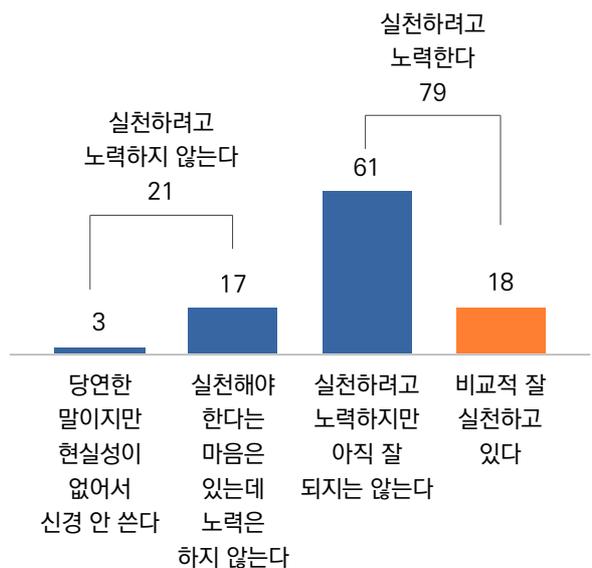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

-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18절 말씀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의 말씀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한 의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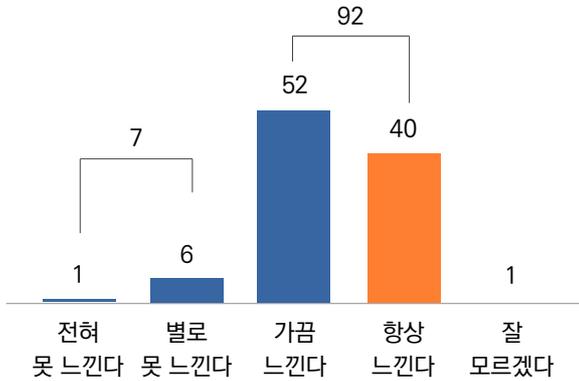
[그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실천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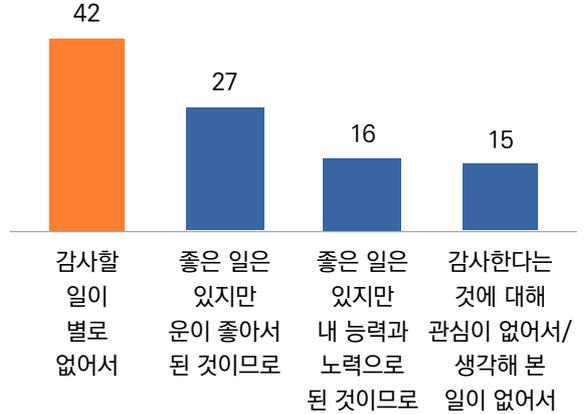
●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인, 기독교적 세계관 부족!

-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평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비율도 40%로 상당수 되고 있다.
-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감사의 근원에 대해 ‘관심 없다’는 의미가 짙는데,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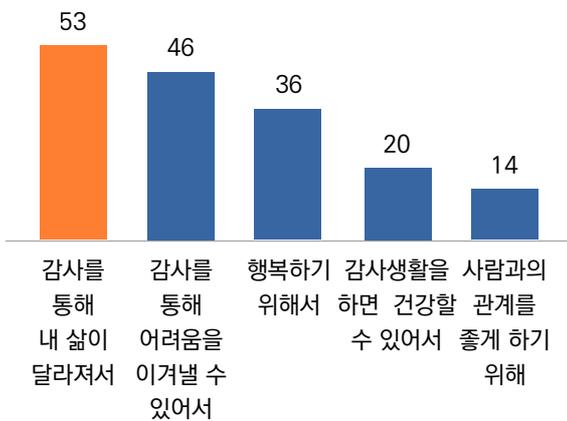
[그림]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이유 (평소 감사하는 마음 느끼지 못하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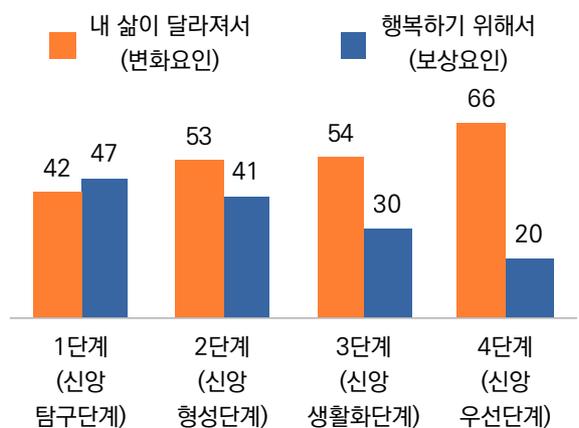
● 감사해야 하는 이유, 신앙수준이 높을수록 보상보다는 변화요인 응답이 높아!

-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했는데,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져서’라는 이유를 절반 이상(53%)이 응답했는데, 이는 감사 생활을 하면 인격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으로 감사이유에 대해 ‘변화요인’과 ‘보상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신앙수준이 낮은 사람은 보상요인을, 높은 사람은 변화요인 지적률이 높다.
- 신앙단계가 올라갈수록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져서’와 ‘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감사 생활이 신앙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평소 감사해야 하는 이유(1+2순위, 상위 5위)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응답자) (%)



[그림] 감사 이유로 ‘내 삶이 달라져서’ vs ‘행복하기 위해서’ 응답률(신앙수준별) (%)



*Note : 신앙단계구분

1단계 :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신앙 고백이나 확신에 이른 것은 아니다.

2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교회에도 규칙적으로 출석하려고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3단계 : 나는 예배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묵상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 나는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도 잘 참여하는 편이다.

4단계 : 신앙은 나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교회에서의 봉사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

2



감사성향,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는데, 특히 교회내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 감사성향을 세분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감사성향 ‘상’ 그룹 30%, ‘중’ 그룹 41%, ‘하’ 그룹 29%로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성향 ‘상’ 그룹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감사 성향별 인구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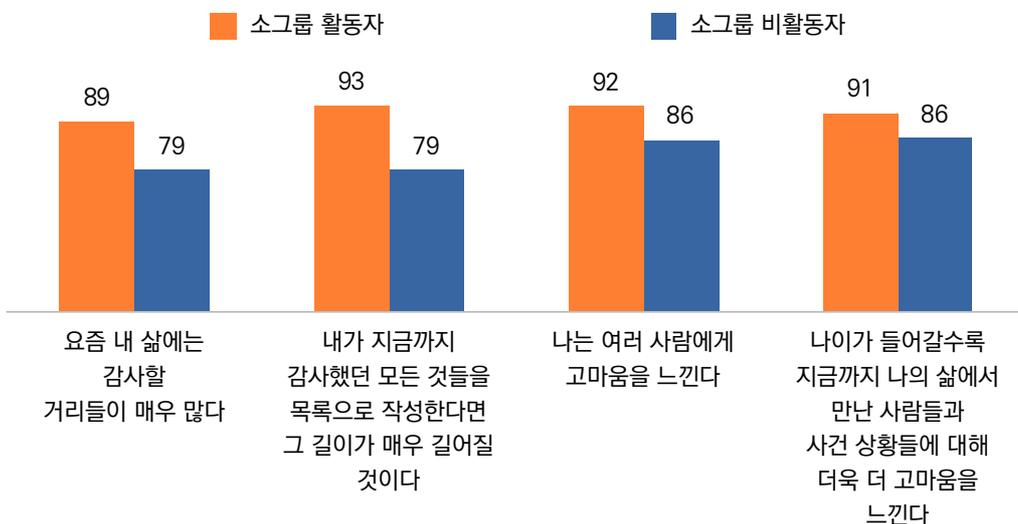
전 체		상	중	하	합 계
		30	41	29	100
연령대	만 19~29세	17	38	45	100
	만 30~39세	21	44	35	100
	만 40~49세	30	44	27	100
	만 50~49세	35	42	22	100
	만 60세 이상	38	38	24	100
신앙 단계	1단계: 신앙탐구단계	14	43	43	100
	2단계: 신앙형성단계	25	42	33	100
	3단계: 신앙생활화단계	33	45	22	100
	4단계: 신앙우선단계	54	34	13	100
소그룹 활동	활동	41	35	24	100
	비활동	24	44	32	100

※ 감사 성향 세분집단 산출근거

- 다음 6개 항목의 응답 점수를 합산(‘잘 모르겠다’는 제외) : 5번과 6번은 부정 질문이므로 점수를 역코딩
 - 요즘 내 삶에는 감사할거리들이 매우 많다
 - 내가 지금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그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이다
 - 나는 여러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 상황들에 대해 더욱 더 고마움을 느낀다
 -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이나 상황에 고마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다
 - 세상을 둘러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다
 → 이 6가지 항목은 권성중이 개발한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를 이용함
- 합산 점수를 분포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집단으로 분류함

구분	합산 점수	명칭
1집단	1~16점	하
2집단	17~20점	중
3집단	21~24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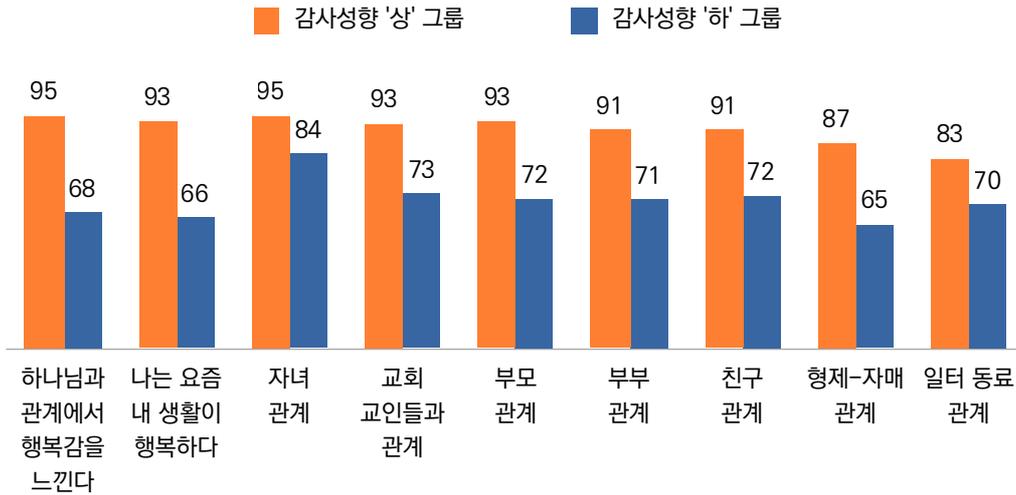
[그림] 소그룹 활동 여부별 감사성향(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



● 감사성향 강한 그룹이 개인의 행복도/사람간의 관계 만족도에서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 자신의 행복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만족도를 보면 감사성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사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신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확인해 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행복도 및 관계 만족도 (감사성향별,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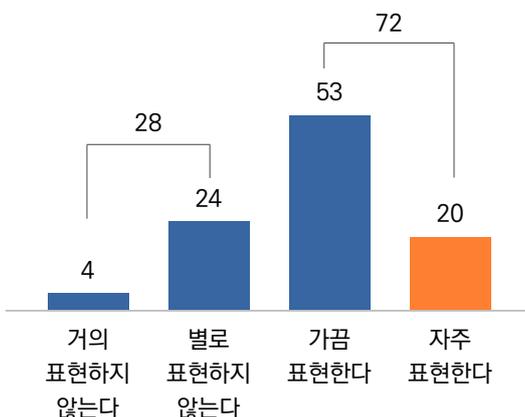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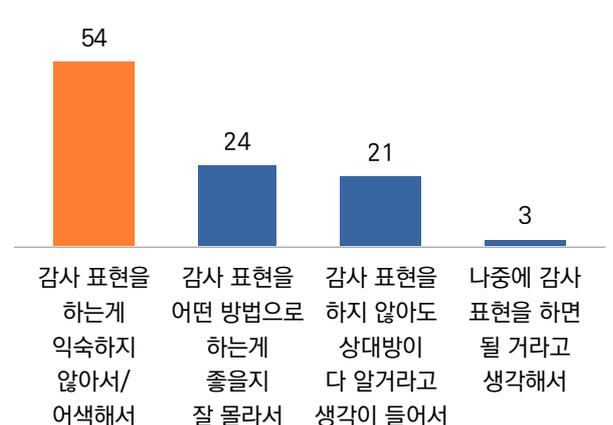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기독교인, 20%에 불과!

- 감사를 표현하는 비율(자주+가끔)은 72%로, 앞에서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비율이 92%인 것과 비교하면 그보다 약 20%p 적다.
- 또한 '자주 표현한다'는 비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넓게 있으나 감사 표현은 그만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색해서', '상대방이 알거라고 생각들어서' 등의 이심전심이라는 한국적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 감사하는 마음 느낄 때 말과 행동으로 표현 여부 (%)



[그림]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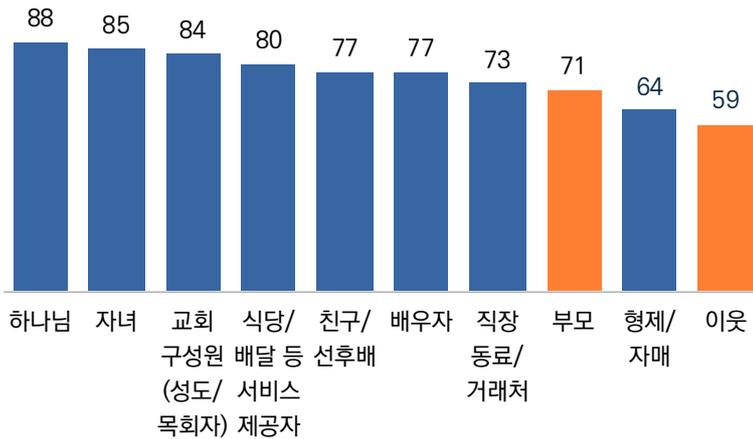


● 하나님과 교회구성원에 대한 감사보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표현 인식!

- ‘하나님’과 ‘교회 구성원’에 대한 감사표현 빈도가 높는데 반해, ‘배우자’, ‘부모’ 등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보다 적었다. 특히 ‘형제/자매’ (64%)에 대한 감사 표현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어제 하루 절반의 기독교인이 감사표현을 ‘했다’고 응답했고, 감사할만 한 일 중 감사표현 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감사 표현 대상(각 대상별 응답자, 항상+가끔)

(%) [그림] 감사 표현 횟수



- 어제 하루 감사할만 한 일 횟수 → “평균 4.2회”
- 어제 하루 감사 표현 여부 → “했다 52%”
- 어제 하루 감사 표현 횟수 (어제 감사 표현한 응답자) → “평균 3.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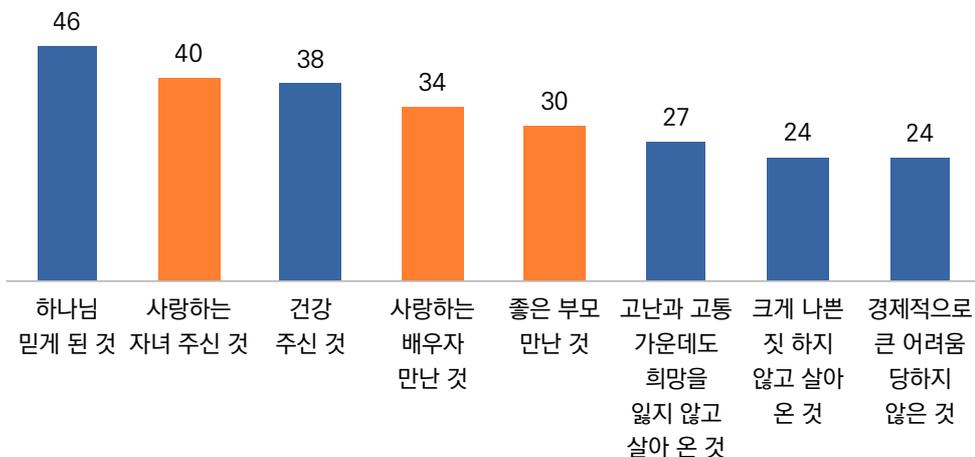
● 인생 최고의 감사 제목, ‘하나님’과 ‘가족’!

가족 중에서는 자녀 감사가 가장 크고, 부모 감사가 가장 낮아

- 유언장을 쓴다면 가장 감사한 일로 ‘하나님 믿게 된 것’, ‘자녀 주신 것’, ‘배우자 만난 것’ 등이 높아, 인생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과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흥미로운 것은 가족 중 ‘자녀’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고, ‘부모’에 대한 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자녀 중심적’인 우리사회의 가정 문화를 드러내는 결과이다.

[그림] 지금 유언장 쓴다면 감사할 제목(1+2+3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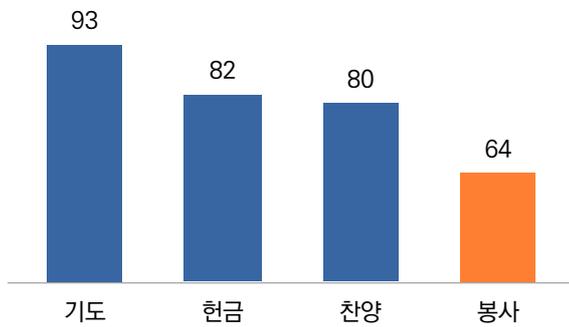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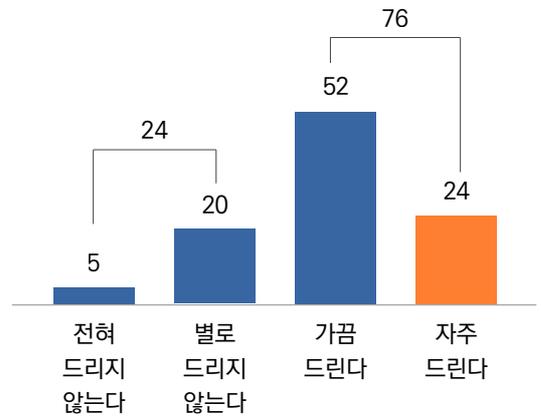
기독교인 4명 중 1명(24%), 하나님께 감사 기도/찬양하지 않아!

- 하나님에 대한 감사표현으로 '기도'가 절대 다수였고, '봉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64%)을 보였는데, 감사의 표현이 봉사까지 연결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나 감사찬양을 '자주 드린다'는 응답이 24%로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고, 반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감사찬양을 드리지 않은(전혀+별로) 경우 역시 4명 중 1명 가량(24%)으로 조사됐다.

[그림] 하나님께 감사 표현 방법(4점척도, 항상+가끔 한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한다는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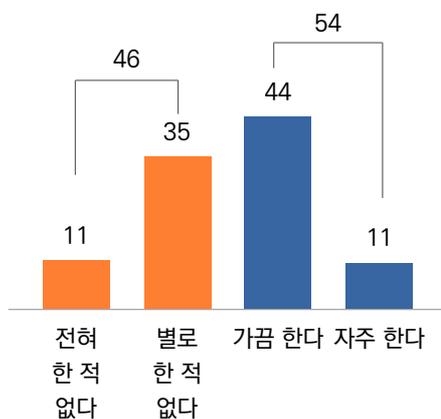
[그림] 하나님께 감사 기도/찬양 드리는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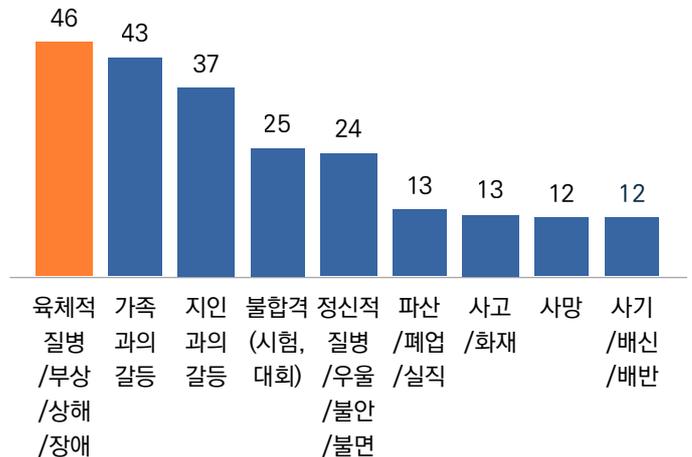
● 기독교인의 46%,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 없다'!

- 기독교인 중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한 경험이 절반을 조금 넘었고(54%), 46%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우는 '육체적 질병/장애' 등이 46%로 가장 높는데, '가족과의 갈등'이 두번째로 응답돼,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한 가정이 상당수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연수와 신앙단계가 높을수록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 (%)



[그림]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우(중복응답)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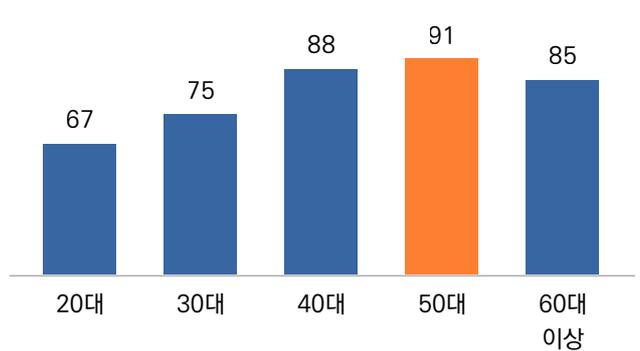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 결단 경험 있어!

- 설교를 듣다가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한 경험은 82%로 대부분이었다. 감사 설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설교를 통한 감사 생활 결단 경험이 높는데, 특히 50대가 91%로 거의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 결단 경험



[그림] 설교를 듣고 감사 생활 결단 경험(연령별)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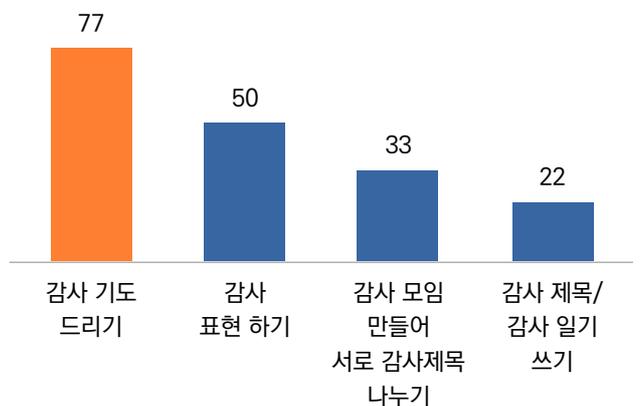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진행하면 대부분의 교인들(82%)이 참여!

- 출석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실시 경험은 절반 정도(51%)로 나타났다.
- 교회에서 실시한 감사 캠페인 내용은 '감사기도'가 가장 많고, '감사일기 쓰기'는 22%인데 대형교회 교인들에게서 특히 그 비율이 높았다.
- 출석교회의 감사 캠페인 시 본인 참여율은 82%로 교회가 캠페인을 실시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실시 여부 (교회 출석자)



[그림] 교회에서 실시한 감사 캠페인 내용(중복응답) (%) (감사 캠페인 실시한 교회 출석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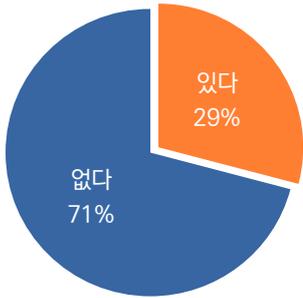
[그림] 교회 안팎의 감사 캠페인 참여 경험

교회의 감사 캠페인 시 본인 참여율 : 82%
교회 밖 감사 캠페인 시 본인 참여율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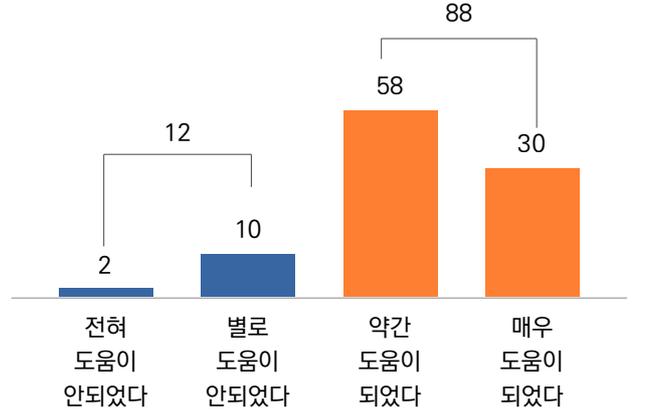
● 감사 생활 관련 교육/훈련 참여 경험 29% → 감사생활 ‘도움됐다’ 88%!

- 감사생활에 대한 강의/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 그러나 참여한 사람의 절대 다수가 감사생활에 ‘도움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감사 교육이 감사생활에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감사 생활 관련 강의/교육/훈련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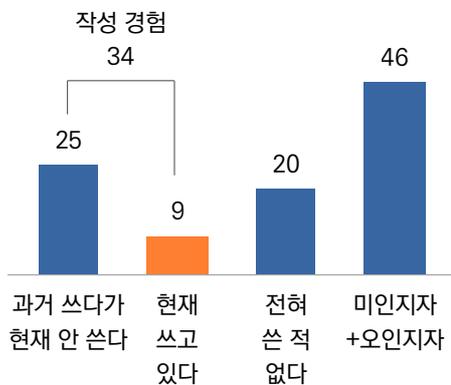
[그림] 감사 생활 관련 강의/교육/훈련이 감사생활에 도움 여부 (강의/교육/훈련 받은 응답자)



● 감사 일기 작성, 현재 작성 9%, 작성경험 34%!

- 감사 일기에 대해 기독교인 3명 중 1명 정도(34%)가 작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쓰고 있는 비율(9%)보다 중단한 비율(25%)이 훨씬 높는데, 그만큼 지속적인 감사일기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감사 일기를 중단한 이유는 ‘게을러서’, ‘기계적으로 된다’ 등의 응답이 높는데, 모임을 구성해 그 안에서 지속적인 나눔과 피드백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감사 일기 작성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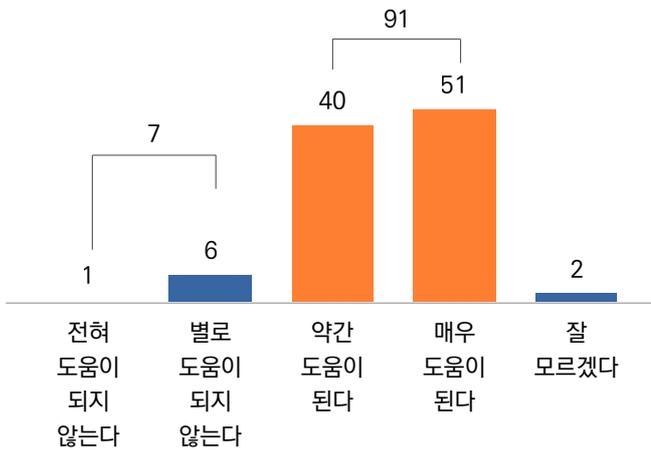
[그림] 감사 일기 작성 후 중단 이유 (감사 일기 썼다가 중단한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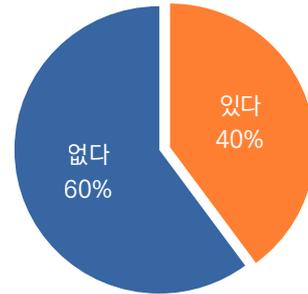
● 감사일기, 감사생활에 ‘도움된다’ 91%

- 감사일기가 감사생활에 도움되는 정도는 91%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일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데, 방법의 일환으로 감사 일기 나눔모임 참여율은 현재 감사일기 작성자나 중단자 기준으로 40%였다.

[그림] 감사일기가 감사생활에 도움되는 정도 (%)



[그림] 감사일기 나눔 모임 참여 여부 (감사일기 중단자 + 현재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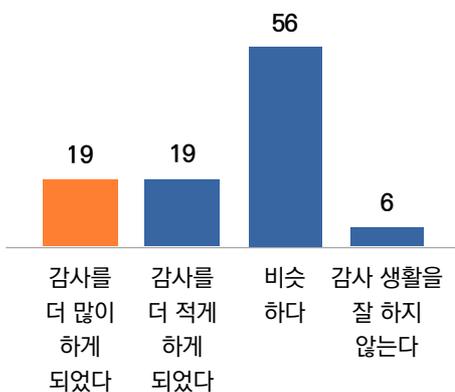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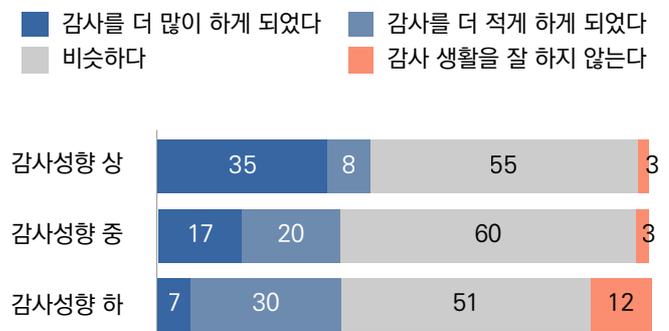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즐지 않아!

-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들의 감사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감사생활 변화를 질문한 결과, 감사를 ‘더 하게 되었다’와 ‘더 적게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감사생활이 크게 즐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 특히 감사성향이 강한 ‘상’ 그룹에서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더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아 주목된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감사생활 변화(전체) (%)



[그림] 코로나19 이후 감사생활 변화(감사성향별) (%)





시사점

1.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을 이 찬양만큼 잘 드러낸 것이 있을까? 이 가사에는 하나님, 구원, 자연, 고난, 인생, 응답, 가정, 희망 등등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분이 세계와 사람 속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믿는 데서 출발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총체적 결과가 감사인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므로 고난이 끝이 아니며 그 고난을 뚫고 지나면 자신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 기독교 세계관 정립이 필수적이다.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여 함양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한가지 발견사항은 감사 표현의 방법으로 '봉사'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세계관을 확장시켜야 한다. 즉 나에게 온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과 그것의 '통로'가 된 사람 사이에서만 가두지 않고, 받은 은혜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써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자기로부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로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감사 표현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전해질 때 세상은 살만한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다.

신앙 생활이 그렇지만, 감사 생활 역시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렵다.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감사 일기, 감사 제목 쓰기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창 시절 일기 쓰기와 마찬가지로 감사 일기, 감사 제목 쓰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10쪽).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 제목이나 감사 생활을 서로 이야기하는 '감사 나눔 모임' 구축이 효과적이다. 감사 나눔 모임의 유익함은 4가지가 있다. 첫째, 타인의 감사 생활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공동체 속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감사 생활을 통해 감사 필요성,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배우는 감사 교육/훈련의 효과가 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퇴색해질 때 이를 재활성화(revitalizing)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감사에 게을러졌을 때 서로 자극을 주어서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다. 감사 모임은 별도로 만들 수도 있으나 교회에서 소그룹이 모일 때(온라인 모임 포함) 서로 지난 생활을 나누면서 감사 제목을 나눌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그룹 활동자층에서 비활동자층보다 훨씬 감사 성향이 높은 것을 보면, 소그룹 모임에서 감사를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기독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감사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한 경우가 무려 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감사 생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중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설교에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또 출석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교인(82%)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9쪽), 이러한 조사 결과는 목회 강단에서 감사 설교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을 진행하면 교인들이 마음으로 쉽게 동의하며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감사 생활이 세상을 보는 긍정적 시각을 높이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절을 맞아 한국교회에서 감사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 한국 사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인식]
우리 국민 절반가량 주 4일 근무제 '찬성한다!'
2.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대학생 및 졸업자 3명 중 2명, '사실상 구직 단념!'

1.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국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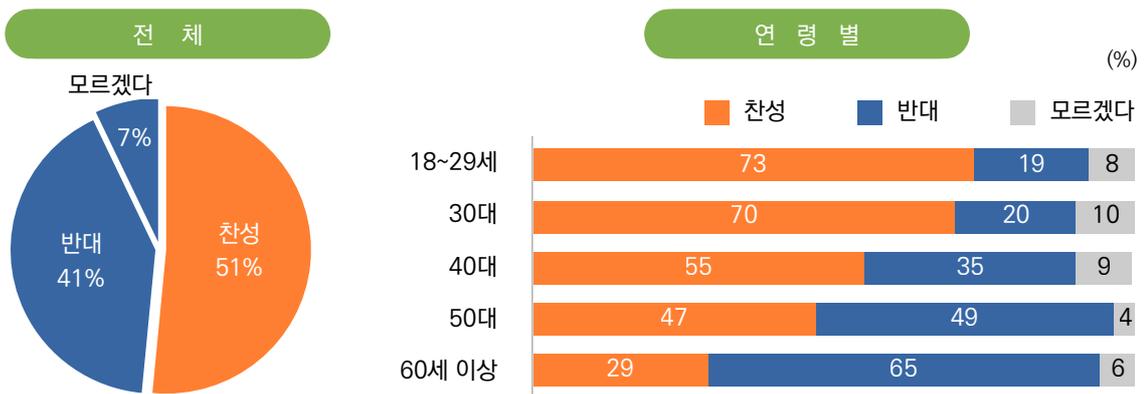
요즘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전 세계 3위다. OECD 평균인 1,687시간과 약 22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 시간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보다 주 5일제 도입 시 논의되었던 주일 성수 등 기독교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주 4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 한다.



우리 국민 절반가량 주 4일 근무제 '찬성한다'!

-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2명 중 1명(51%)은 주 4일제 근무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 주 4일제 찬성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큰데, 20~30대 MZ세대는 찬성 의견이 매우 높은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반대의견이 높았다.

[그림]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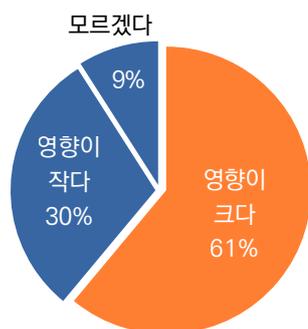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국민들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11.0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0.15.-10.18)

**4점 척도로 '전적으로+그런 편' 수치임

●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삶에 미치는 영향 크다' 61%!

-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우리 국민의 61%는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삶에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고 '영향이 작다'는 30%로 응답해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미치는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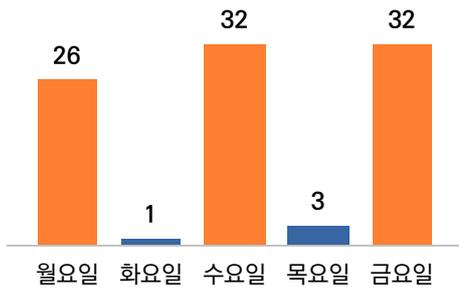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국민들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11.0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0.15.-10.18)

**4점 척도로 '매우+ 그런편'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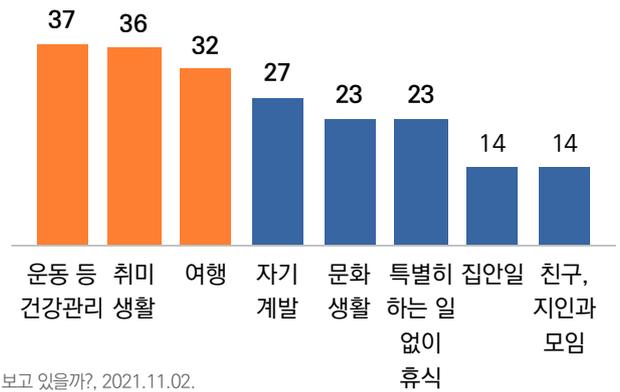
●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면, '수요일'과 '금요일' 선호도가 32%로 가장 높아

- 주 4일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면 어느 요일을 가장 선호할까? '수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월요일' 26%였다.
- 휴일이 하루 더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으로는 '운동 등 건강 관리' 37%, '취미생활' 36%, '여행' 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주 4일 근무제 도입시 휴일 선호 요일



[그림] 주 4일 근무제 도입 후 휴일 1일 늘어났을 때 하고 싶은 것(상위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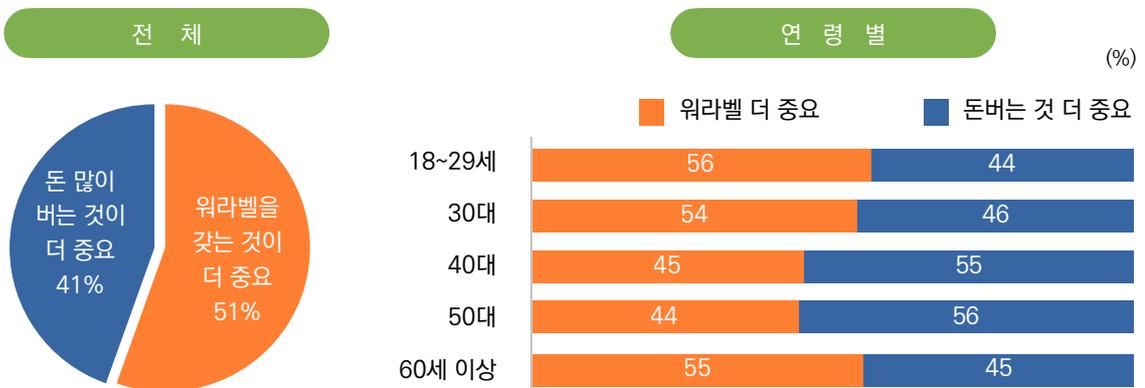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국민들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11.0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0.15.-10.18)

● 개인의 삶, '워라벨이 중요' 51% > '돈 버는 것이 중요' 49%로 서로 엇비슷해!

- 개인의 삶에서 워라벨과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개인 시간 및 워라벨이 중요하다' 51%,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 49%로 두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 워라벨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20-30대 젊은층과 60대 이상층에서 높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40-50대 중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림] '워라벨' vs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인식



*자료 출처 :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국민들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21.11.02.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1.10.15.-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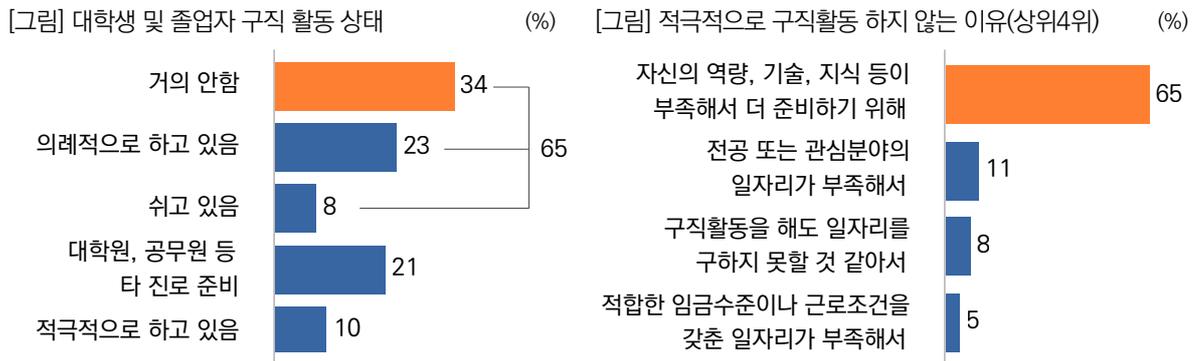
**4점 척도로 '약간+훨씬' 수치임

2.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대학생 및 졸업자 3명 중 2명, '사실상 구직 단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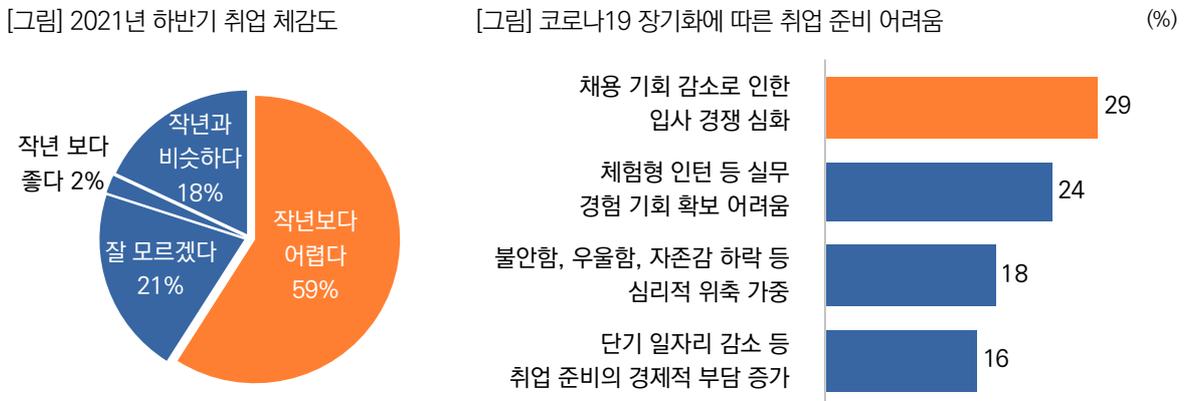
-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가운데 취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34%), 의례적으로 하고 있거나(23%), 쉬고 있는(8%) 등 구직 활동을 사실상 단념한 대학생 및 졸업자는 65%로 3명 중 2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가 65%로 가장 높았다.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대학생 10명 중 6~7명 사실상 구직 단념', 2021.10.13.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및 수료/졸업생 2,713명, 설문지 응답, 2021.08~09.06)

● 대학생 및 졸업자, 올해 하반기 취업 '작년보다 어렵다' 59%

- 올해 대졸 신규 채용에 대한 체감도는 59%가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했고, '작년보다 좋다'는 2%에 불과했다.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 준비의 어려움으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 24%, '불안함, 우울함, 자존감 하락 등 심리적 위축 가중' 18% 등의 순이었다.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대학생 10명 중 6~7명 사실상 구직 단념', 2021.10.13.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및 수료/졸업생 2,713명, 설문지 응답, 2021.08~09.0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72호\(2021년 11월 2주\) -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이유, 일상회복 예상 시기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53호 \(2021년 11월 2주\) - 대통령 국정 운영, 차기 정치 지도자 등](#)

[역대 7번 일치... 이 직업군이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 된다](#)

조선일보_2021.11.07.

[중소기업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능력 갖춰야"...노동개혁도 요구](#)

연합뉴스_2021.11.07.

사회
일반

[카드결제 상위 15%, 더 멀리가서 돈 썼다... "이동거리 97% 회복"](#)

매일경제_2021.11.07.

[국민연금 1인 평균 55만원, 최저생계비 처음 넘었다](#)

중앙일보_2021.11.08.

[10월 사이판 여행객 2.3배로 꺾춤... 2000명 넘어](#)

동아일보_2021.11.08.

[5억 받고 40대도 떠난다... 은행 희망퇴직 올 4000명 넘을 듯](#)

동아일보_2021.11.08.

[김 대리는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 '워케이션' 중입니다](#)

한겨레_2021.11.10.

취
재
전
단

['코로나 족쇄' 20-21 학번 "집에서 나홀로 스펙쌓기... 번아웃"](#)

동아일보_2021.11.06.

[코로나에 술자리 줄고 집·캠퍼스서 '혼술' 대학생 늘었다](#)

연합뉴스_2021.11.09.

[요즘 20대는 결혼 전에 독립한다...홀로 거주 5년새 43% 늘어](#)

조선일보_2021.11.10.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 자녀...비중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1.11.08.

[다문화학생 16만명...학교는 여전히 '소통 고민'](#)

매일경제_2021.11.09.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낫다" 2030, 중년이 하던 자활 줄었다](#)

중앙일보_2021.11.11.

경제

[소비자원 "코로나19에 디지털 소비 증가...10명 중 8명 이용"](#)

연합뉴스_2021.11.09.

[한국 잠재성장률 2044년 0.62% 꼴찌... 나랏빛 증가 속도는 1위](#)

조선일보_2021.11.09.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겹쳐... 점점 쪼그라드는 한국경제](#)

조선일보_2021.11.09.

국제 (비교)

[한국, 접종완료율 76.5% 세계 최고 수준...미국·일본·독일 추월](#)

여성신문_2021.11.06.

[보행중 사망 교통사고 절반 이상은 노인...10년째 OECD 1위 오명](#)

연합뉴스_2021.11.07.

["아동 33만명 성착취 인정"... 프랑스 사제들, 무릎 꿇고 사죄](#)

조선일보_2021.11.07.

["코로나 팬데믹에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840만t 더 생겨"](#)

연합뉴스_2021.11.09.

기독교

["기독교인끼리만 감사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 배려·용서하자"](#)

국민일보_2021.11.09.

[새신자 정착, '전도자'의 열정에 달렸다](#)

기독교연합신문_2021.11.02.

[목회자부부 절반 이상 "하루 대화 30분 미만"](#)

국민일보_2021.11.05.

[청년 성도-사역자 간 교회문제 시각차 크다](#)

국민일보_2021.11.12.

* 기획기사 : 능력주의는 얼마나 공정한가

[\(상\) 부모 월소득 대비 자녀의 특목고 진학률...700만~1000만원 3.5%, 300만원 이하 1.4%](#)

경향신문_2021.11.02.

[\(하\) 세 살부터 대학 학비 2배 영어학원 다닌 그들...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나](#)

경향신문_2021.11.10.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행복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으뜸, 신명자,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용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중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